

## 유치원 교실에서 교사가 부르는 변형된 노래의 양상과 의미 연구\*

The Meaning and Use of Modified Songs by Teachers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정경수(Kyoung-Su Jung)<sup>1)</sup>

손승학(Sung-Haak Son)<sup>2)</sup>

임부연(Boo-Yeon Lim)<sup>3)</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ole of the variation of songs by teachers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where songs play an important role in managing the daily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teachers have demonstrated a high degree of competency to transform and modify a variety of songs that fit into children's developmental levels. The use of such songs enable both teachers and young learners to fully enjoy such classroom activities and are an important means for establishing rappor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direct observation and video recording in three early childhood classrooms, as well as through interviews with the teachers, and through the researcher's journals.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teachers exhibit a high degree of professionalism in creating variations of the kind of songs that children seem to enjoy, and thereby creating high levels of classroom enjoyment generally. This study also showed that using a good variety of songs in early childhood classroom can facilitate understanding of the content in the curriculum. Finally,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teachers' skills in designing variations of songs can make early childhood education classrooms culturally attractive and aesthetically more creative.

---

\* 본 논문은 2014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sup>1)</sup>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sup>2)</sup> 부산대학교 BK 21 플러스 연구원

<sup>3)</sup>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Lim Boo Yeu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Jangjeun-dong, Kumjeung-gu, Pusan 609-735, Korea  
E-mail : blim@pusan.ac.kr

**Keywords** : 변형된 노래(variations of songs), 음악 교육(music education), 유아교실(early childhood classroom).

## I. 서론

‘음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이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고 Nietzsche (1899)가 강조한 바와 같이 음악은 어린 유아들의 존재 자체와 강력하게 밀착되어 있다. 유아들은 흥겨운 음악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흔들거나, 춤을 추고, 일상에서 쉴 새 없이 흥얼거리고, 따라 부르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스스로 리듬 있는 소리들을 지어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리듬 있는 소리와 음악에 태생적으로 지향(innated born)되어 있는 본성은 유아들의 삶의 내면을 풍요롭도록 도와주고 성숙시켜 준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가 리듬이나 선율에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하루 일과를 통해 음악이 자연스럽게 통합되도록 하여 유아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정서적 안정을 도우려 한다(Werner, 1943). 이에 많은 선행 연구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음악을 통한 교육이 지능과 감정발달, 인격형성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Choi, 2006; Lee & Ryu, 2008; Lee & Um, 2003; Yun, 2008).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들을 위한 음악 활동으로 듣기와 노래 부르기, 창작하기와 악기다루기 등의 다양한 영역을 균형 있게 통합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많은 교사들은 유아들의 음악활동에서 가장 편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노래 부르기’를 지목하고 있는데(Park & Cho, 2013), 이는 노래 부르기가 일상적으로 특별히 악기나 악보, 녹음기와 같은

매체를 준비하지 않아도 유아들이 혼자서 혹은 여럿이 모여앉아 바로 부를 수 있는 가장 수월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노래 부르는 주제에 적합한 ‘새 노래 부르기’의 수업형태로 활발하게 전개되지만, 대부분 유아들의 노래부르기는 일상에서 이미 알고 있는 노래와 많이 들은 노래, 또 선생님한테 새로 배운 노래들을 마구 뒤섞어 일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된다(Kim, 2001).

유아교사는 하루의 시작 인사를 노래로 하고, 날씨와 출석, 날씨를 알아보는 아침모임에 다양한 유형의 노래를 섞어 흥겹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일과를 마치고 귀가 할 때도 노래로 마무리하여 유아들의 경험에 정서적 이완과 즐거움을 보태어 유치원 생활의 심미감을 지원해 주고 있다(Kim & Bae, 2010). 노래 부르기가 초중등학교 교실에서 비해 유아교실에서 훨씬 더 빈번하고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일상화’되어 있음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것이 ‘활동’이나 ‘수업’설계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교과적 접근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개’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단위활동이나, 수업설계가 아닌 교사와 유아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그 순간의 다른 단위활동들이 부드럽게 전개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매개’이고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Lim & Kim, 2011; Lim, Kim, & Choi, 2009).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아교사들이 음악활동에서 노래 부르기를 ‘새 노래 배우기’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주목해 볼 만한

점이다. 즉 일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부르는 노래들은 새 노래 배우기의 수업설계와 단위 음악활동의 성질을 가지기 보다는, 마치 교사가 유아들의 생각을 모으기 위해 수수께끼를 내거나, 손인형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전이’와 ‘매개’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일과 속에서 노래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통해 구체적 언어개념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유아노래에서 가사를 통한 음악경험의 중요성은 유아교육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으며(Kim, 2002), 이는 가사를 통해 유아들이 음악을 향유하면서 보다 미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이다(Gim & Bae, 2010). 노래 부르기에서 ‘가사’는 유아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하루의 많은 시간을 노래와 함께하게 되는 유아기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주변의 세계를 끊임없이 탐색해 나가는데, 특히 언어로 이루어진 소리의 리듬, 즉 노래는 풍부한 상상력, 창조적 표현능력을 한껏 북돋아주는 계기가 된다(Bang & Kim, 2000). 유아들은 같은 리듬에 다른 노랫말을 넣어 부르기, 동음이어, 이음동어와 같은 반복되는 즐거운 어휘들을 바꾸어서 부르기를 즐긴다. 그것은 즉흥적이기도 하고, 의도적이기도 하며, 또한 적합한 노래 가사를 순간적으로 지어내야 하는 창조적 순발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도전적이고 매혹적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서의 즐거움을 넘어 다소 복잡한 언어적 사고를 요구하는 인지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매개와 전이의 의미를 넘어선다. 같은 뜻을 가지지만 다른 말을 지어 넣거나, 비슷하지만 다른 재미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즉흥적으로 지어 넣을 때 그것은 아주 미약하지만 ‘창작’이 되고 같은 생각을 나누고 즐기는 행위를 통해 ‘소통’과 ‘합일’의 느낌을 강화시켜

준다.

일과 속에서 노래 부르기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노래가사의 창작과 변형이다. 노랫말을 바꾸어 접합한 상황에 맞는 노래 부르기를 일상 화함으로써 기능적이고 수업단위 형식의 노래 부르기 활동을 극복해 갈 수 있다. 이로서 음악은 유아의 생활 속에 녹아있는 모습으로 스며들어 가며, 일상의 즐거운 경험으로 변해 가는 것이다(Charles, 2001). 이미 아는 노래의 변형적 접근은 다양한 상상적 이미지를 통하여 구조화된 현실에 새로운 영감을 불러 일으켜 줄 수 있으며(Jung, 2002). 유아들로 하여금 세계와 사물에 대해 느끼는 자신의 고유하고 독특한 느낌을 보다 총체적 예술경험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 줄 수 있다(Kim & Jo, 2001). 왜냐하면 이것이 곧 예술을 통한 전인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이다(Na, 2001).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이러한 노래의 창작과 변형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 부르기를 단위수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일상적으로 전이나 매개로서 부르는 노래를 ‘음악교육’이나 예술 활동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Choi, Song, & Jung, 2002; Kim, 2010; Kim, 2001; Kim, 1996; Kwak, 1999; Lim & Kim, 2004). 음악을 감상이나, 새 노래 배우기, 노래극이나 창작표현과 같은 단위활동으로 제한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유아음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교사들이 음악을 교수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수매체로 사용되거나(Jang, 2004; Song, 2001; Sin, 2000), 피아노 반주에 맞춰 유아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정도의 기능적이고 결과론적인 음악적 경험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한다(Choi, 1999; Joo, 1993; Lee, 2004).

그러나 유아들은 오히려 형식적 음악활동만이 아닌 매우 비형식적 순간에 음악을 수시로 즐기는 음악적 존재이다(Park, 2012). 마치 인류가 문화적 의례를 수행하며 반드시 소리와 리듬을 섞어 음악적 행위를 하였듯이, 유아들의 즉흥적 노래본성은 본능적이고 문화적이며, 심미적인 것이다. 유아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음악적 세계를 형성하며 유아교실 곳곳에서 노래를 변형하여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Kim, 2003), 이는 오히려 독립되거나 고립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상황 인지적이고 맥락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즉 유아들은 아무 때나 무작위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노래를 변형하여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긴장을 이완시켜야 할 때, 즐거움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또래와 친구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지루함을 달래기 위하여, 방금 접한 동식물에서 오는 경이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등 유아들은 맥락적 특이성에 따라 다채롭고 변형과 창작을 즐기고 있음을 보여준다(Kim, 2001; Kim, 2002; Kim, 2013; Kim & Yu, 2012). 이러한 유아들의 일상적 음악 즐기기를 지원하고 격려해 주는 방법은 교사가 유아들의 일상적 노래 부르기의 세계 속으로 이입해 들어가는 것이다. 노래는 선생님과 유아가 함께 부르는 것이 좋고, 교사가 다양한 변형을 자유롭게 실시하는 모습에 노출됨으로써 유아기의 음악적 본능이 강화되고 활성화 될 수 있다. 유아교사는 노래가 유아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고, 활동과 활동을 매개해 주고, 자칫 지시어와 구조화된 발문으로 경직될 수 있는 활동을 유희적으로 전화시켜 줄 수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 많은 교사들은 단지 음악수업이 아닌 일상화된 노래 부르기를 독창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노래 부르기의 변형 양상을 탐구해 보는 것은 유아교실의 음악과 노래 부르기의 일상화를 위한 노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이 일과 속에서 노래를 어떻게 변형하고, 창작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그 의미와 양상이 어떠한지 질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능적이고 독립된 단위 활동이 아닌 매개와 통합, 소통과 관계의 일환으로 하루 일과 속에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하여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노래를 통한 유아교실의 예술성과 심미화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교사와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교실에서 유아교사가 부르는 변형된 노래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교실에서 유아교사가 부르는 변형된 노래의 의미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유아교사가 노래를 어떻게 변형하며 교실의 일과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유아교사가 교실에서 노래를 변용하여 일상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기관 및 담당 유아 연령의 변인에 제한을 두지 않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유아

〈Table 1〉 General background of the study participants, and classroom

Division	Teacher A	Teacher B	Teacher C
Early childhood institution	Beautiful kindergarten	Delicate kindergarten	Sky kindergarten
Establishment type (Features)	Private (Attached church)	Private (Attached Temples)	Public
Age(Sex)	28(F)	34(F)	29(F)
Education	4-Year college	4-Year college	4-Year college
Career	4	10	5
Been responsible for age of class	3 Years	4 Years	4 Years
Class size (M / F)	20(12/8)	28(13/15)	21(12/9)

교육기관에서 교사를 추천 받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유아교육기관은 교회부설과 사찰 부속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으로 총 3곳의 유아교육기관이며,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교사는 각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전문가 및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음률활동을 좋아하고 노래에 관심이 많은 교사이다.

이들의 교사 경력은 최소 4년 이상이며, 평균 경력은 6.3년 이었고, 학력은 모두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다.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은 종교적이거나 교육적 특색이 있는 곳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본 틀에 따라 생활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교사A의 경우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훈육된 종교적인 생활양식을 통해 교회부설 특유의 음악적 성향이 수업 시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전자피아노 연주와 변주로서 드러났다. 교사B는 개인적인 흥미를 통해 음악에 관련된 교육과 연수를 찾아다녔으며, 수업 시 적절하게 변형된 노래를 사용해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유아와의 소통을 증진시켰다. 특히 교사C는 2012년 ‘전통 장구 교실’을 찾아가 교육을 받은 경험을 계기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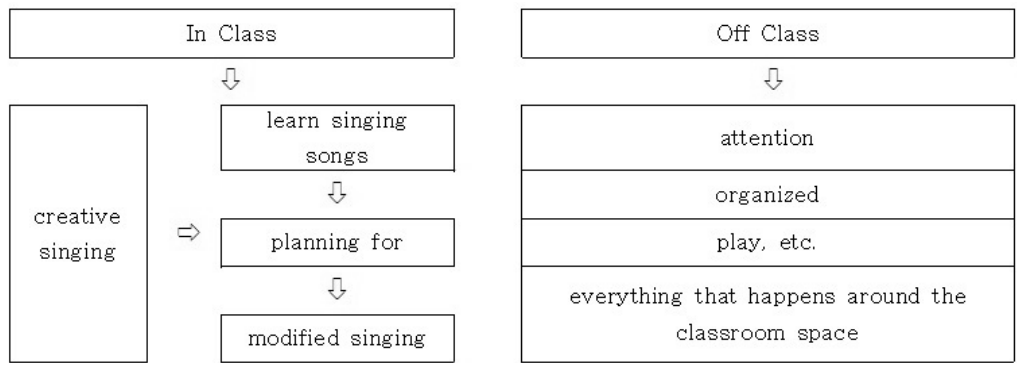
후 수업 시 장구를 적극 활용하며, 발화 사이 장구리듬을 곁들여서 일반적인 담화를 음악화하는 등의 다양한 음악활용의 특색을 보이게 되었다 한다. 앞서 살펴 본 이러한 세 교사는 각각의 특색에도 불구하고 유아와의 수업을 증진시키고자하는 노력에 대해 공통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3월 28일까지 각 유치원 별로 10회기씩 총 30회기에 걸쳐 비참여 관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비디오 녹화, 비참여관찰, 사진자료, 연구자 일지, 유아 및 교사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형식적 면담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2014년 3월 28일까지 교사별로 4회기씩 진행하였다. 면담은 일과가 끝난 후의 시간을 이용하였으며, 각 반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음악활동에 대한 인식,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또한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의 시간을 활용한 비형식적 면담으로 일과진행

<Table 2> Discussion period and content

Teacher A	Teacher B	Teacher C	Place	Time	Discussion
11/21	11/22	11/20	Teachers' room	15:00~15:30	Preliminary observations
12/20	12/18	12/19	Classroom	17:00~17:30	Awareness of musical activities
01/27	02/27	02/28	Classroom	17:00~17:30	Teaching methods
01/31	03/27	03/28	Classroom	17:00~17:30	Features expression



<Figure 1> When a song is being used

과 활용한 노래에 관한 궁금한 점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자료는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모든 변형된 노래의 형태를 보기 위해 노력 하였으며, 교사의 수업과 비 수업의 형태를 구분하여 관찰을 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수집된 자료는 먼저, 비참여 관찰 비디오 녹화본의 전사 자료는 교사의 변형된 노래를 중심으로 발췌, 분류, 범주화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비디오 녹화본의 전사본과 연구자일지 및 교사와의 비형식적인 면담자료를 중심으로 현상학 및 해석학인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은 연구자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자가 발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전사본이나 다른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Strauss & Corbin,

1990), 해석학적 순환 속에서 내적인 질문과 대답의 변증법적 순환을 통해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해석학적 나선형적 분석과정(Hwang, 2010)을 거쳤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자료 분석방법은 전사(transcription), 분류화(categorization), 의미화(conceptualization)의 과정으로 정리된다. 본연구자들은 전사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선입견이나 오류를 배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비디오 촬영분을 당일 전사하였으며 최대한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여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분류화의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교사의 노래를 촬영한 비디오 녹화 전사본과 연구자일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나 문구들로 코드화하여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별 사례로 분류하였다. 마지막 분석과정인 의미화는 코

드화작업에서 배열된 주제나 분류에 의미를 부여하고 범주화 시키는 작업과정이다. 도출된 범주와 주제어는 원 자료 중 비디오 촬영 자료와 연구자일지, 전사된 자료 간의 일치도를 알아보고, 자료 분석에 대한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원 자료와 비교하여 재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수집한 자료를 의미화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전문가 1인 및 유아교육 전공 박사 1인 및 경력 10년차의 현장전문가가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연구자 삼각측정법(Investigator Triangulation)(Mathison, 1988)을 사용하여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많은 사례 가운데 교사와 유아들 간의 변형된 노래가 사용되어지는 양상과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사례를 선정하여 해석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유아교실에서 변형된 노래 부르기의 양상

노래를 일상적으로 많이 부르는 교사들에게 공통으로 발견된 노래의 양상은 교실의 하루 일과 운영 시 노래를 응용한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자유선택활동의 마무리와 활동의 전이, 아침모임과 수업활동 진행시에도 자연스럽게 노래를 불렀다. 이 때 교사는 일과진행 의도에 맞게 기존의 노래를 활용하거나 변형하였다. 교사가 부르는 변형된 노래의 양상은 (1) 노래의 일부만

가져와 노래를 변형하는 경우 (2) 노랫말을 개작하여 노래를 변형하는 경우 (3) 노랫말을 창작하여 노래를 변형하는 경우로 범주화되었다.

##### 1) 노래의 일부만 가져와 변형하는 경우

교사는 자신의 일과 운영 시 노래의 특수한 내용과 가사만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정한 멜로디를 포함한 노래의 일부는 흐트러진 주의를 자연스레 집중시키기도 하였고, 교사 스스로 수업의 묘미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교사는 이야기나누기 대형의 아이들을 마주보고 교사 자리에 앉아있다. 교사는 파워포인트 이야기나누기 자료를 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교사: 어? 사진의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니?  
수민: 앉아있네!(앉아있는 채로 이야기 한다.)

수민이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사진을 본 아이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며 교사에게 집중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든다. 교사는 아이들을 둘러본다.

교사: 그런데, (노래 부르며)<sup>1)</sup> 선생님께서 친구들 앞에 서 계신다, 그지?

다시 유아들이 선생님과 이야기나누기 자료에 집중한다.

(2014. 2. 4, 하늘유치원 C교사 관찰자료)

위 사례는 교사와 유아들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이나 장면이 바뀌면서 유아들이 자신의 경험을 불러오고 그에 대해 생각을 이야기하며 다소 소

1)  (Kim, 1995)  
그 런 데

란스러운 상황이 되자, 교사는 유아들을 둘러본 후,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며 흐름을 이어나갔다. 특히 교사는 기존의 노래 일부와 자신의 변형으로 서두를 연 후, 이야기나누기 자료의 설명을 이어나가 수업과 이야기나누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유아들을 수업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보였다.

복도 멀리서 두 명의 아이들이 뛰어오고 있다.  
 교사: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노래 부르며). 선생님님이 안보는 동안 복도를 뛰어다니네.  
 아이들: (부끄러워하며 천천히 걷는다.)  
 (2013. 12. 27, 하늘유치원 C교사 관찰자료)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모둠별로 앉아있다. 병아리 모둠 친구들의 목소리가 다소 크게 들린다.  
 교사: (병아리 모듬의 이야기 하는 유아들 옆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들릴까?(노래 부르며)  
 아이들: (입을 다물며 주위를 둘러본다.)  
 (2013. 12. 10, 하늘유치원 C교사 관찰자료)

교사는 이야기나누기 등의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를 운영하는 과정에도 변형된 노래를 활용하였다. 위의 사례들은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일과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을 관찰한 것으로, 화장실을 뛰어서 다녀오는 유아들에게 교사는 유아들이 가까이 있을 때 나지막이 노래를 불렀으며, 점심식사 준비 중인 모듬에게도 다가가 노래를 불렀다. 유아들은 긴장 없이 노래를 들었으며 자신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었다.

2) 노랫말을 개작하여 노래를 변형하는 경우  
 기존의 노랫말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불충분한 경우, 교사는 노랫말을 지금과 조금

후의 상황을 예견할 수 있도록 변형하여 불렀다. 인상적인 멜로디가 있어 유아들의 시선을 끌거나 조금의 변형으로 일과운영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노래가 변형되는 경우이다.

교사가 새로운 교구를 소개한 후, 교구를 제자리에 갖다놓을 것을 제안한다.

교사: 애들아, 조작놀이 영역이 어디 있을까?  
 유아들: (두리번거리는 유아들, 그냥 교사를 쳐다보는 유아도 있다.)

교사: 하-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구나! 선생님이랑 알아보았었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조작 놀이에 한 번 가 볼게. 너희들은 눈빛만 가 보는 거야. 자!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 지 눈빛만 따라오는 거야.(일어나서 눈빛은 유아들을 맞추며 노래 부른다) 어디까지 왔나? 칠판까지 왔네! 어디까지 왔나?(빠른 걸음으로 쌓기 놀이 영역 앞으로 간다.) 쌓기 영역 왔네! 어디까지 왔나?(노래하며 빠른 걸음으로 조작놀이영역으로 간다.) 휴-(땀 땀는 시늉을 하며) 조작놀이 왔다!  
 (2014. 3. 11, 아름유치원 A교사 관찰자료)

위 사례에서는 전래동요 “어디까지 왔니?”를 변형하여 수업의 일부에 사용하였다. 만 3세 유아교실에서 교사는 노래와 함께 직접 칠판, 쌓기 영역, 조작놀이 영역으로 움직임으로써 유아들의 흥미, 감각, 놀이적 요소를 놓치지 않는 한 방향으로 노래를 활용하였다.

신학기에는 교실을 둘러보고 교실의 영역, 교구, 물건들의 이름을 명명하고 익히는 활동이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특히 만 3세 유아교실에서는 이런 활동이 노래와 함께 진행되는 점이 두드러졌다. ‘눈은 어디 있나?’ 노래를 변형하여 “준희는 어디 있나?”, “휴지는 어디 있나?” “과학영역 어디 있나?”처럼 친구,



교실의 물건, 놀이영역을 알아보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교사는 자유선택 활동시간에 질문을 할 때에도 노래로 되묻거나 (2014, 3, 20, 아름유치원 A교사 관찰자료), “민수야, 이럴 땐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2014, 3, 13, 하늘유치원 C교사 관찰자료)라며 노래로 질문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랫말을 변형한 노래는 수업뿐 아니라 전이시간에도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끝나고 정리음악이 나오고 있다. 화장실을 다녀온 유아들이 정리를 시작하고 있다. 쌓기 영역 유아들이 블록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다소 지체되고 있고, 색종이 영역에 유아들은 종이조각들을 줍고 있다. 정리가 먼저 끝난 아이들은 모임자리에 앉아 있다. 교사는 교실을 돌면서 유아들에게 정리를 권하고, 전체를 둘러본다.

교사: (쌓기 영역으로 와서) 민재는 착하고 정리하고, 멋지고!(노래 부르며)<sup>1)</sup>

민재: (교사를 한 번 보더니 블록을 바구니에 넣기 시작한다.)

교사: 한운이는 착하고 멋지고 정리도 잘하고!(노래 부른다.)

교사의 노래에 쌓기 놀이에 있던 남자유아 5~6명이 정리를 서두른다.

(2014. 1. 17, 하늘유치원 C교사 관찰자료)

C교사는 활동의 마무리와 정리 시에 비규칙적이지만 노래 부르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정리가 다소 뒤쳐진 영역에서 “정리하자”고 말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다. 유아들은 자신의 이름이 노래 속에 들어가기 기대하면서 정리하는 속도를 높이는 등 확연히 눈에 띄는 행동들을 하였고, 교사는 크지 않은 목소리로 즐겁게 노래 불렀다. 위 예시에서는 백창우의 ‘착하고 싸우고 착하고(Baek, 1999)’라는 원곡의 멜로디를 차용하되 ‘착하고’, ‘싸우고’, ‘착하고’라는 가사 부분에 ‘착하고’, ‘멋지고’, ‘정리 잘하고’등의 가사를 유아들의 행동추이를 보며 적절히 넣고 부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노랫말을 창작하여 노래를 변형하는 경우

미술활동에 대한 안내가 끝나고, 교사가 준비물을 나눠주려고 한다. 교사는 유아들을 한 번 돌아보다가 민재 쪽에서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다.

교사: 멋쟁이 김민재! ( 짹짹 ) 다함께 불러봐( 짹 짹 )<sup>2)</sup>

유아들: 김민재.

민재: (카펫에 엎드려 있다가 바로 앉으며 교사를 바라본다.)

(2014. 2. 13, 고운유치원 B교사 관찰자료)

1) (Baek, 1999)  
 착 하 고 정 리 하 고 멋 지 고

2) (Hisaishi Joe: 'Totoro' Main Thema, 1988)  
 멋 쟁이 김 민 재 ( 짹 짹 ) 다 함 께 불 러 봐

위의 사례는 기존의 노래 멜로디를 그대로 두고 노랫말을 새롭게 창작하여 노래를 변형하는 경우로 교사는 민재가 다소 산만한 행동을 보이자 노래를 부르며 민재를 수업에 불러들였다. 기존 노래의 인상적인 멜로디를 자각하고 있는 교사는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멜로디에 맞게 변용하였으며, 유아들도 익숙한 멜로디에 쉽게 동화되는 모습이였다. 음절수를 맞추어 “김민재, 김민재”, “김준희, 김준희”라며 유아들의 이름을 계속 바꾸며 활동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활동을 위해 강당으로 이동했다. 유아들이 동그랗게 모여앉아 있고, 교사는 오늘의 활동을 소개한 후, 먼저 시작해 볼 유아를 찾고 있다.

교사: (노래 부르며)오늘의 선생님은 누구일까? 살금살금 찾아보자. 어? 빨간 옷을 입었나? 노란 양말을 신었나? 선생님이 머리 꺾으면 그 친구가 오늘의 선생님!(노래를 부르며 동그란 대형의 유아들 사이를 다닌다.)  
땅 속에 숨었나?(노래 부르며) 아니.아니 천장위에 숨었나? 아니.아니 다시 찾아봐야지.  
오늘의 선생님은 누구일까? (노래를 부르며 유아들 사이를 다시 찾아본다.)  
(2014. 2. 13, 아름유치원 A교사 관찰자료)

위의 사례는 만 3세를 맡고 있는 A교사에게서 관찰된 자료로, 어린 연령을 맡고 있어 다른 교사들보다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교사는 ‘작은 별’ 노래멜로디를 차용하여 활동 시 노래를 불렀는데, 특이할 사항은 노래와 대화, 챗트를 섞어 사용하여 활동마다 변형과 새로움을 창조하고 유아들의 기대감을 유지하면서도 긴장과 이완으로 집중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어? 빨간 옷을 입었나?’라고 교사가

리듬감 있게 발문하며, 빨간 옷들을 입은 유아들에게 긴장감을 유발시키다가, 다시 유아들 사이를 이동하며 ‘노란 양말을 신었나?’라며 기대감을 이동시킨다. 이어 작은 별 노래의 변용하여 ‘땅 속에 숨었나?’ ‘천장 위에 숨었나?’ 라고 다시 노래 부르며 시선을 이동시키다 ‘아니.아니 다시 찾아봐야지’라는 발문으로 긴장을 이완시킨다. 이처럼 노랫말을 수업상황에 적합하게 창안하여 대화, 챗트와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재미를 동반한 놀이 같은 수업으로 유아들의 몰입을 유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 2. 교사가 바꿔 부르는 노래가 유아교실에 주는 의미

교실에서 교사가 부르는 변형된 노래의 의미는 (1) 기분 좋은 일상의 변주 (2) 유아의 삶과 교사의 삶이 만나는 통로 (3) 부드러운 언어 미학 (4) 아름다운 교실 문화 창출로 범주화되었다.

### 1) 기분 좋은 일상의 변주

아무래도 노래를 하다보면 제가 즐거우니까요. 즐거워서 부르기 시작할 때도 있고, 아이들이 예뻐 때가 있거든요. 즐겁진 않은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즐거워지니까 부르기 시작할 때도 있어요. 교사경력이 길진 않지만 말로 하는 것보다 유아들이 즐겁게 저의 의도대로 따라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2014. 1. 17, 아름유치원 A교사 면담자료)

교사와의 면담에서 교사들은 먼저 노래 부르는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노래를 부르는 상황 또는 부른 후 감정이 정화된다는 것과 혹시 언어로 전달되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덜 드러난다는 장점을 이야기하였

다. 또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교사이지만 노래를 듣는 유아들의 감정도 상향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유아들에게 노래는 유아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상의 언어(Lim, Kim, & Choi, 2009)로서 교사와 유아들은 노래하는 즐거움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래의 파급력은 유아들의 반복되는 일상에서 감정의 상황과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행동의 변화도 함께 이끌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형된 노래를 부르는 교사와 함께 즐겁게 정리를 시작하는 유아들, 내 이름이 노래말 속에 들어가기 기대하며 집중하는 유아들이 그 예이다. 주목할만 한 점은 교사의 노래가 유아들에게 스스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 2) 유아의 삶과 교사의 삶이 만나는 통로

교사는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버린 몸과 기억들의 층위를 가진 존재(Merleau-Ponty, 1978)로 유아들과는 다른 생활세계 속의 존재이면서 교실 내 교사라는 역할로 인해 끊임없이 유아들의 삶과 언어를 이해받기를 요구받는다. 이처럼 교사는 유아의 생활세계와 교사의 생활세계 사이에 존재하며,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 교사는 유아들의 사고로 몸을 낮추며, 그들의 통로로 소통하고자 한다. 성인에 비해 유아들은 비이성적 사고, 감성적 지각, 유희와 놀이성에 기초한 세계를 살고 있으며 변형된 노래라는 통로는 교사가 접근할 수 있는 소통의 적절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즉 변형된 노래라는 매체가 감성을 자극하여 유아들의 삶의 문을 열고, 멜로디를 타고 흐르는 이야기가 어른들이 하는 명령, 지시와는 다른 어조로 유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이는 노래가 불러오는 흥얼거림, 따라부르기, 몸 흔들기 등 유아기 몸의 지각·반응

등 음악적 발달특성(Kim, 2001)과도 연결되어 이해되는 부분이다.

교사, 유아, 교육과정이 만나는 교실의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변형적 노래를 생성하고 부르는 교사는 교실장면에 따라 즉흥 연주하는 교사(Aoki, 1991)의 모습에 가까우며 이는 다수의 유아들이 얽혀 살아가는 예측불가능하고 복잡한 교실 상황에서 유아들의 발달특성을 견지한 채 그들의 생 세계에 몸담고 함께 춤추고자 하는 살아있는 교육실현의 한 장면으로 비춰졌다.

## 3) 부드러운 언어 미학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다가, 동요 같은 것도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노래를 부를 때 아이들이 “선생님, 그거 무슨 노래예요?” 묻기도 하고, 집중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서 불러보기도 하고...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 있을 때만 부르다가...

(2014. 1. 24, 고운유치원 B교사 면담자료)

교사들은 노래가 주의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매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B교사는 유아들이 자신이 부르는 노래에 관해 묻기도 하고 집중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 후, 자신의 목소리와 노래를 교수매체로 활용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특히 챗트와 노래 등 몸과 놀이에 근간하여 배우고 습득하는 유아들의 인식체계에 가까운 교수-학습의 중요한 도구임을 알고 있었다. 즉 변형된 노래라는 형식을 통해 유치원에서 배워야 하는 지식, 태도, 기술을 부드러운 언어로 전달할 수 있었다.

노래를 부르니까 큰 소리를 덜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땐 저도 놀라요. 제가 막 이상하게 부르는 노래에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나누기 할 때 꼭 들었으면 하고 할 때 보다 더 조용히 귀를 기울이거든요. 야단을 안치는 건 저에게도 좋고, 애들에게도 그 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고요...

(2014. 1. 24, 고운유치원 B교사 면담자료)

B교사는 큰 소리를 덜 내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였는데, 이는 행동수정을 요하는 유아뿐 아니라 B교사가 맡고 있는 학급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B교사는 아름답게 만들어진 선율의 동요뿐 아니라 창안하여 흥얼거리는 노래에도 강조하여 이야기할 때보다 귀를 기울이는 점을 언급하는데, 이는 유아들이 개념적인 언어를 배우기에 앞서 흥얼거리고 비구조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생애적이고 본능적이라는(Lim, Kim, & Choi, 2009) 연구에 비춰 해석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교사의 여러 형태의 바뀐 부르는 노래는 유아교실의 유아라는 존재와의 소통을 전제에 둔 배려의 언어로 격상된다. 멜로디를 가진 아름다운 언어로 유아의 감성을 먼저 두드려 유아들의 삶이 교육적 의도로 이끌려 나오도록 하며, 언어의 기능적이고 도구적 기능에 미적 기능이 추가된 형태로 언어 미학의 한 방편으로 명명될 가능성마저 열게 되는 것이다.

즉 교실 안에서 변형된 노래는 언어의 미적인 기능이 보완된 형태로 보인다. 적절한 음절의 가사와 멜로디의 결합이라는 형식, 감성적인 언어라는 측면, 노래가 불리는 상황과 노래를 부르는 교사의 태도 등에서 듣는 대상뿐 아니라, 교실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의 자율성을 방해하지 않는 언어인 것이다.

#### 4) 아름다운 교실문화 창출

노래가 많이 흘러넘치는 교실을 보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교사가 노래를 부름으로써 말하는 것보다 훨씬 교실분위기가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도 긴장을 덜 하는 느낌이다. 다른 유치원 교실에서는 약간의 긴장감이 흐르는데... 연구자인 나도 교사가 항상 흥얼거리며 뭔가를 하고 있어서 관찰자로서 교실에 존재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2013. 12. 23, 연구자 일지)

교실이라는 공간은 유아들과 교사, 학습을 유도하는 많은 교재 교구들로 이루어진 곳으로 많은 유아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발화와 긴장감이 유발되기도 하는 곳이다. 그러나 노래는 이 공간의 빈 틈, 긴장감의 틈새를 메워주었다. 교사의 변형된 노래는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전복시켜 즐거움과 웃음을 제공하거나, 낮은 상황, 사람들 속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을 따뜻하게 풀어가기도 하였다. 특히 교실 속의 일과를 주도하는 교사가 부르는 노래는 긴장감을 이완시켜 활동으로 편안히 진입하도록 하였고, 유아라는 사회제도에 진입하려는 서투른 존재가 거주하는 교실을 심리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발도르프 교육기관에서 작업이나 활동을 할 때 매 순간 노래를 부르고 활용함으로써 심미적 교실분위기를 형성하고(Kwak, 1999), 레지오 에밀리아를 구현하는 기관의 교사의 노래, 클래식 선율은 운율이 가득한 심미적 언어로 공간을 메우는(Jung & Lim, 2013)노력은 아름다운 교실문화 창출의 요인임을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교사가 부르는 변형된 노래를 교사의 발화형태의 하나로 볼 때, 교사의 발화와 언어양태가 유아교실의 문화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Berk & Winsler,

1995; Lim & Kim, 2010; Ryu, 2007)로 작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태경: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노래 부르며)  
민호가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 태경이가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민호: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태경이가 졌다고 전화 왔어요.

태경: 아니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 민호가 빵구라고 전화 왔어요.(웃음)

(2013. 2. 14, 하늘유치원 관찰자료)

물감놀이를 하고 있다. 물감을 찍어 물통에 넣어 섞는다.

서인: 파란 물에~(노래 부르며 붓으로 가로로 선을 긋는다.) 파란 물에~

(2013. 2. 12, 아름유치원 관찰자료)

바깥놀이시간, 소꿉들을 모래놀이터에 부어놓았다. 그 중에서 작은 삽을 들고 땅을 판다. 가빈이가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린다.

가빈: 흙을 파자, 흙을 파자

(2013. 2. 18 고운유치원 관찰자료)

또한 교실의 놀이상황에서 유아들이 노래를 변형하여 부르는 장면들이 관찰되었는데, 첫 번째 사례는 기존의 노랫말의 일부를 변형하였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사례는 기존의 멜로디에 노랫말을 바꿔 챗처럼 부르는 장면이다. 세 교실에서 유아들은 노래를 자신이 이해한 방식으로 흥얼거리거나 바꿔 부르는 장면들이 빈번하게 목격되었는데, 이는 노래에 놀이의 속성이 내재화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때 자신의 경험·생각·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Ko & Kim, 2012)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유아는 2세경이

되면 자기중심적이며 말놀이 식의 즉흥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Lee, 2010), 5세 이전에 구조가 있는 노래를 즉흥적으로 만들어 부를 수 있는(Davies, 1992) 유아 음악능력의 발달과도 연관된다.

결론적으로 유아들의 발달특성, 놀이의 속성, 사회관계형성의 측면의 의미를 통해 유아들은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고 변화, 발전시켜나간다. 그 과정에 자신의 문화권에서 익숙하게 경험한 음악을 멜로디와 결합하여 즉흥적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며(Snyder, 1997), 교실 속 교사의 발화양식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이 서로 비슷한 삶의 양상을 만들어 가게 된다. 즉 노래를 즐겨 부르는 교사의 모습은 자연스레 유아들에게 흡수되어 놀이상황에서 외화 되고, 이러한 장면은 유아상호간에 공유, 융합, 확장되어 일상적 교실문화의 하나로 외연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실에서 교사가 부르는 변형된 노래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도출하고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변형된 노래의 활용은 유아교실에서 유아와 교사가 더불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사는 판에 박힌 일상(routine)을 노래라는 음악의 예술장르를 도입, 변형하여 유아들의 일상을 변주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여 감정을 해소하고, 긴장감을 이완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게 한다.

유아교육기관은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일과는 반복적인 틀을 갖게 된다. 이러한 반복은 규칙성의 내재화로 유아들에게 심리

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한편, 지루함, 식상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교사에게도 적용되는데 교사가 부르는 노래는 동료교사, 어른들과의 상호작용이나 감정교류가 힘든 일상에서의 정서적 출구로써, 유희성을 갖는 기제로써 작동한다(Lim, Kim, & Choi, 2009).

즉 유아교실에서 부르는 변형된 노래는 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정서순화, 정서적 안정감을 창출할 수 있는 기제로 구동되며, 유아들의 유희성에 근거한 유아의 존재자체에 더 밀착하여 살고(dwelling)자 하는 교사의 교실 속 모습이다(Aoki, 1991).

둘째, 변형된 노래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서의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점이다. 이는 교사가 교수-학습 매체로서 자신의 목소리, 즉 교사의 몸을 즉석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적용하는 것으로, 노래를 적재적소에 만들거나 변형하는 것은 교사의 음악적인 전문적 지식 뿐 아니라 유아들의 발달특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바탕에서 출발한다. 또한 오랜 경험을 통해 유아들의 반응, 행동 변화를 포함한 실천적 지식의 교수기술까지 반영된 것으로 이는 교육과정 운영자·실천자로서 적절한 교수자료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교사의 창조적 실행(Lim, Yoo, & Ryu, 2012), 즉 전문성과 직결된 것이다.

셋째, 교사의 노래의 창작적 변형과 활용을 통해 교사 및 유아가 미적체험과 창의성을 경험할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유아들이 흥미를 느끼는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이 곧 미적 경험(Csikszentmihalyi, 1994)이라고 볼 때, 교사의 변형된 노래는 유아들을 재미있는 경험으로 안내하고 미적체험으로의 몰입을 유도한다. 더욱이 교사가 일과 중에 노래를 변형하는 부르므로 일상적으로 심미감을 체험할 기회를 가지며, 창

의성 역시 일과 속에서 지속적으로 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는 미적체험과 창의성이 특정 교과, 시간, 계기를 통해 창출되지 않는다는 속성을 지지하며, 음악이라는 예술 장르의 환희, 즐거움, 쾌감, 놀이적 속성을 동반하여 과정의 즐거움을 유지한 채 경험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유아교실에서 교사가 부르는 변형된 노래에 관한 연구로 그 영역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노래라는 형식은 부르고 들으며 함께 공유될 때 그 효과가 배가되므로, 유아들을 연구영역에 추가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자유선택활동이나 바깥놀이 등 유아 고유의 놀이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변형된 노래의 양상과 의미를 폭넓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사와 유아의 변형된 노래의 의미를 보다 이론적이고 심층적인 관점에서 드러낼 수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노래가 발화의 한 양태라고 할 때, 노래를 통해 유아들의 삶과 생각이 드러나는 것은 그들의 존재와 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통로로서의 가능성을 연다. 노래와 음악에 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는 유아들의 심리 및 발달상태, 삶과 관계, 또래 문화 양태를 아우를 수 있기를 제언해 본다.

## References

- Aoki, T. T. (1991). Teaching as indwelling between two curriculum worlds. In W. F. Pinar & T. T. Aoki, *Mahwah* (pp. 159-165). New Yor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ek C. W. (1999). *Bori children song town*. Gyeonggi-do: boribook.
- Bang, G. J., & Kim Y. H. (2000). *Academy of music creation*. Seoul: Hakmun Publishing.
- Berk, L. E., & Winsler, A. (1995). *Scaffolding children's learning*.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Charles R. H. (2001). *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 (Translated by Ahn, M. J). Seoul: Ewhapress.
- Choi, M. S., Song, S. S., & Jung, Y. H. (2002). The effect of traditional play-song program in the reduction of children's stres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9(2), 137-158.
- Choi, S. S. (1999).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s of singing a song for infants.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Proceedings*, 27(1), 381-395.
- Choi, Y. A.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nd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Csikszentmihalyi, M. (1994). *Flow :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Choi, I. S.). Seoul: hanullim.
- Davies, C. (1992). Listen to my song: A study of songs invented by children aged 5-7 years.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9(1), 19-48.
- Gim, C. C., & Bae J. H. (2010).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creative music education from a perspective of g. deleuze & f. guattari's aesthetic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3(1), 87-108.
- Hwang, H. I. (1998). *Child Study Movement*. Seoul: Jeongminsa.
- Jang S. H. (2004). A study of songs and chants as an effective means of teaching english in the presch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Joo, E. J. (1993). The present status on pre-school primary children and efficient guiding principles for teaching sing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C. G. (2002). *Jung Archetyp und Unbewubtes*. (Grundwerk C. G.). Seoul: Seoul Editions.
- Jung, K. S., & Lim, B. Y. (2013). The meaning of the teacher's utterance on types of kindergarten's program.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 213-139.
- Kim, B. J. (2001). *Theory and practice of mus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Seoul: Modern Music Publishing.
- Kim, H. G. (1996). *The theory and practice of music education in kindergarten*. Seoul: Changjisa
- Kim, J. B., & Bae, J. H. (2010).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creative music education from a perspective of G. Deleuze & F. Guattari's aesthetic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3(1), 87-108.
- Kim, K. H. (2013). The implications through the inclusive education of free waldorf schools in Germany.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7(4), 1-27.
- Kim, K. H. (2003). Study on the effect of advertising music and song to childhood. *Institute of Korea*

- Traditional*, 17(1), 226-247.
- Kim, K. I. (2010). A study on kindergarten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recognition of music teaching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 Kim, M. H., & Yu, Y. O. (2012). Actual practices of young children's English education method and english teacher in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4), 153-168.
- Kim, M. S., & Jo, G. J. (2001). *Music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theory and practice*. Seoul: Daumfoundation.
- Kim S. G. (1995). *Kimsungkyun music book*. Gyeonggi-do: Kookminbooks.
- Kim, S. O. (2001). A study on the song teaching method for early childhood. *Music and Korea*, 22, 270-289.
- Kim, Y. Y. (2002). *Early childhood musical pedagogy*. Seoul: Hakjisa.
- Ko, Y. J., & Kim, M. J. (2012). Effectiveness on the early childhood of the integrated music education through.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2, 63-86.
- Kwak, N. U. (1999). *Free waldor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ul: Bright Nuri.
- Kwak, Y. J. (1999). Research and analysis of music educating system in domestic pre-elementary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 J. (2010). Analysis of children's singing ability.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30(6), 331-343.
- Lee, O. J., & Ryu, J. S. (2008). The effect of singing with the learning cycle on the musical ability of young children. *The Province of Gangwon do Office of Education*, 4(1), 85-103.
- Lee, Y. S. (2004). A study on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in kindergarten. *The Province of Gangwondo Office of Education*, 1(1), 105-128.
- Lee, Y. Y., & Um, J. A. (2003). The effect of integrated approach in the musical activity on children's music aptitude development and creativity.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4(1), 41-54.
- Lim, B. Y., & Kim, S. S. (2010). An ethnographic study on understanding of culture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5(5), 315-340.
- Lim, B. Y., & Kim, S. Y., Choi, N. J. (200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hildren's singing in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Society for Pentecostal Studies in Korea*, 37, 303-333.
- Lim, B. Y., Yoo, H. R., & Ryu, M. H. (2012). Developing a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teacher aesthetic connoisseurship based on Maxine Greene's philosophy.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9(1), 55-76.
- Lim, H. J., & Kim, Y. Y. (2004). A research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children's songs preferred by korean kindergarten teachers. *The Korean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4(6), 193-212.
- Na, S. H. (2001).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guidebook*. Seoul : Segwang
- Nietzsche, F. W. (1988). *Der wille zur macht*. Seoul: Chungaha.



- Park H. S., & Cho, E. J. (2013). The effects of creative singing activities based on form of folk song on young children's musical creativity and preference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Korea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 18*(5), 109-131.
- Park, S. M. (2012). An ethnography of children's musical experiences emerging from daily life in kindergarten.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6), 291-320.
- Ponty, M. M. (1978).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First printing 1945). Français: Gallimard.
- Ryu, J. S. (2007). Teacher's intervention during free play time in a kindergarten cla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in, I. S. (2000). A study of children's music comprehension. *The Korea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 5*(2), 23-44.
- Snyder, C. R. (1997). *Hope for the journey: Helping children through good times and bad*. Colorado: Westview Press.
- Song, Y. N. (2001). Which is adapting international method of musical education for children: Focusing by the theory of acknowledgement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won University, Seoul, Korea.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Sage.
- Werner, H. (1943). *Comparative Psychology of mental development*. New York: Science Editions.
- Yun, Y. B.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child music education program by Orff approach on music aptitude, emotional quotient, and crea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ty, Seoul, Korea.

Received May 31, 2014

Revision received July 28, 2014

Accepted August 12, 2014